

자격증 없는 안전요원에 구조장비 확보도 안돼

전남 해수욕장 '불안한 개장'

전남지역 해수욕장을 찾기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격적 휴가철이 시작됐음에도 피서객 안전을 책임질 해수욕장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해수욕장 안전 관리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4월 16일 이전 대한민국과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 공언이 헛말이나 다름없게 됐다 지적도 거세다.

◇법적 기준도 못 갖춘 34개 해수욕장 =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12개 시·군 55곳의 해수욕장 중 34곳의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장비도 없이 개장, 피서객들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해수욕장의 경우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인명구조선·구명보트 등 인명구조장비를 확보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남지역 개장한 해수욕장의 62%(34개소)가 관련법을 지키지 못한 채 운영에 들어갔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 대표 해수욕장으로 연간 피서객만 100만명(2014년 이용객 54만2700명)이 넘는 완도 명사십리도 해수욕장 관련법(인명구조선 1척·구명보트 3척)상 보유해야 할 안전 장비 중 구명보트 1척만 보유한 상

해경서 지자체로 관리 이관

정부 예산 지원 약속 펴개쳐

55곳 중 34곳 관련법 안지켜

12곳은 요원 없어 개장 못해

황이다. 다만, 수상오토바이를 4대 확보해 피서객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보성 율포·여수 만성리해수욕장도 해수욕장법에 따라 갖춰야 하는 인명구조선 1척·구명보트 2척은 확보하지 못했고 해경이 지원해주는 수상오토바이 2대 만 보유한 게 고작이다.

그나마 신안 흥도·쌍둥어, 무안 흘통, 여수 모사금 해수욕장 등 23개소는 현행법에 따른 구조장비를 갖추기는 커녕, 수상오토바이 등 해상구조장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수욕장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피서객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자격증 없는 안전요원'에 맡긴 안전 =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피서철을 맞아 55개 해수욕장에서 피서객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구조요원은 모두 204명이지만 이들 모두가 수상·재난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춘 것은 아닌, 이른바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이ն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 흘통해수욕장의 경우 확보한 3명의 안전요원 중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춘 요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인근 톨머리 해수욕장도 3명의 안전요원 중 1명만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완도 다음으로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13건)가 많이 발생했던 고흥의 경우 관할 9개 해수욕장 안전요원(55명) 중 20명은 자격증이 없는 '수영 좀 하는' 일반인이다. 전남도는 12개 해수욕장은 아예 안전요원 확보를 못해 개장조차 못했다.

완도는 그나마 자격증을 딴 지 3개월이 안된, '초짜' 안전요원(20명)이지만 모두 자격증을 갖춘 안전요원 50명을 관할 10개 해수욕장에 배치했다.

안전요원 확보조차 어렵다보니, 이들에 대한 해상구조 훈련 등의 교육도 시간에 쫓기면서 해경 도움을 받아 안전요원으로 투입하기 직전, 한 차례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피서객들의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

◇'안전 책임지겠다'던 약속 펴개친 정부 =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뒤 정부는 해경을 대체할 민간 전문 인력과 구조장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예

■ 전남 주요 해수욕장 안전장비 보유 현황

해수욕장명	규정상 필요한 구조장비	실제 보유한 구조장비
완도 신지명사십리	구명보트 3척·인명구조선 1척	구명보트 1척·수상오토바이 4대
보성 율포	구명보트 2척·인명구조선 1척	수상오토바이 2대
해남 송호리	구명보트 2척·인명구조선 1척	구명보트 1척·수상오토바이 1대
여수 만성리	구명보트 2척·인명구조선 1척	수상오토바이 2대
무안 흘통	구명보트 1척	없음
무안 톨머리	구명보트 1척	없음
신안 쌍둥어	구명보트 2척·인명구조선 1척	없음
함평 톨머리	구명보트 2척·인명구조선 1척	구명보트 1척·수상오토바이 1대
신안 흥도	구명보트 2척·인명구조선 1척	없음
여수 거문도	구명보트 1척	수상오토바이 1대
여수 모사금	구명보트 1척	없음
고흥 남열해돋이	구명보트 2척·인명구조선 1척	구명보트 2척·수상오토바이 1대
영광 가마미	구명보트 1척	구명보트 1척
영광 송이도	구명보트 1척	없음
완도 금일	구명보트 1척	수상오토바이 1대
신안 대광	구명보트 1척	구명보트 2척·수상오토바이 2대
신안 하트	구명보트 1척	없음
여수 방죽포	구명보트 1척	수상오토바이 1대
고흥 익금	구명보트 1척	구명보트 1척
진도 가계	구명보트 1척	수상오토바이 1대

(전남도 제공)

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 피서철이 시작됐음에도 약속했던 예산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정부 말만 믿고 있다가 '발등'을 찍힌 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예비비 등을 투입, 부랴부랴 활용하고 있지만 위나 위나 예산이 없다보니 제대로 된 인원·장비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여수시의 경우 정부 지원금(3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난관리기금(3000만원) 등 7100만원의 예산을 해수욕

장 안전관리에 투입했지만 안전요원 인건비(7000만원)도 버겁다는 형편이다. 고흥·보성·장흥 등도 관련 예산이 없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비상 상황이다.

전남도내 시·군은 이같은 인건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들을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게 해 사실상 해수욕장 아간 이용에 따른 안전 대책은 전무한 형편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악취 배출 5개사 매달 오염도 조사

광산구, 결과 따라 행정 조치

광주시와 광산구가 하남산단 내 기업들의 '악취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미이행(광주일보 7월 16일 6면)과 관련, 해당 기업들의 악취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그러나 2년 전 밝혔던 '악취 배출 기업들의 협약 미이행시 조처 예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광산구는 '악취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고도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적발된 하남산단 내 5개 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월 정기적으로 측정 한 뒤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하남산단 내 기아자동차하남주조공장, 화천기공(제2)공장, 현대비엔지스틸(주), ㈜샘스, (주)우회화 등 5개 사업장은 지난해 12월과 지난해 광산구의 악취배출량 조사 결과,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들 기업들의 경우 광주시의회 등이 배출 기준치를 강화하는 방안의 조처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2013년 2월 '조례로 강제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최고 법적 기준의 70%까지 줄이겠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때문에 협약을 맺은 뒤 나몰라라 하는데도, 행정 기관이 미온적 입장을 취하면서 주민만 고통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기아자동차와 화천기공측은 이와관련,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기준치 준수 여부를 떠나 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일당 올려주고 응시료 지원...자격증 취득 독려까지

안전요원 구하기 백태

전남 시·군의 경우 해수욕장 안전 예산 뿐 아니라 안전 요원 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신역이 열악하고 외진 전남 해수욕장에 대한 젊은 안전요원들의 기피 현상으로 안전요원 구인난도 심각한 수준이다.

신안군 해수욕장 안전 담당 공무원은 최근 신안군 해수욕장 지도를 들고 광주호남대를 찾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읍소 한 끝에 18명의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춘 전문안전요원을 확보했다.

지난 5월부터 광주·전남을 비롯, 전북지역 모든 대학 응급구조·스포츠레저학과 등과 접촉, 전문 안전요원 확보에 나섰다. 가 실패한 뒤 개장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직접 발품을 팔면서 이뤄낸 성과(?)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 지역이 많고 불편한 교통, 위험 부담 등으로 선뜻 나서서 사람이 없었다"면서 "하루 일당을 다른 지역 해수욕장보다 2만원 더 많은, 8만원씩 주기로 해 겨우 확보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의 경우 전문 안전요원 확보 작전은 지칠하기까지 하다. 군은 해수욕장 안

전관리 업무가 이관된 뒤 해경을 대체할 민간 전문인력 확보 전쟁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예 지역민들의 자녀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독려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지역민들을 수소문한 뒤 자격시험 응시료(15만원) 일부를 지원 해주겠다고 독려했다.

매년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요원으로의 채용 및 군이 추진하는 행사의 아르바이트 최우선 고용 약속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완도군은 이렇게 해서 지난 5월 20명의 '초짜' 안전요원을 확보, 해수욕장에 투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남군도 지역 내 해상구조대와 해병대 전우회를 통해서만 안전요원 확보에 실패하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확보 여부를 수소문한 뒤 해당 전문가의 자·학연을 총동원해 가까스로 개장 직전, 10명의 인력을 확보했다고 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 도중, 군대에 가거나 그만두는 경우 현재로서는 수영이 능숙한 일반인을 뽑아야 하는 등 인력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 놀러 오세요

19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시민의 숲'에 설치된 물놀이장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물폭포를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광주시에서 설치한 이 물놀이장은 다음달 30일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절도 발각되자 강도 돌변

○...무안의 한 농가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집밖으로 나온 중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인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강도로 돌변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9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조모(35)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무안군 현경면 1층 단독주택에 사는 김모(73)씨의 안방에서 금반지·금목걸이 등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나오던 중 거실에서 발각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씨와 마주치자 폭행한 뒤 출렁랑 친 혐의.

○...절도 등 전과 13번인 조씨는 범행장소에서 2km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옷을 갈아입기까지 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수사를 하던 중 조씨가 옷가방을 메고 슬리퍼를 든 채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조씨를 검거. /무안=김민준기자 jun@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최대 5,000만원 까지

회원전용신용대출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최회 공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2등 - 이류 스타일러(1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4등 - 족욕기(10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